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8만원 저렴

aT 28개 품목 조사...시장 22만원·마트 31만원 소고기 우둔 1.8kg·녹두 1kg은 1만원 이상 차이

올 추석 차례상 장을 전통시장에서 볼 경우 대형 마트보다 8만7000원 가량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 따르면 '올해 추석차례상 차립비용'은 전통시장 22만8632원, 대형 유통업체 31만5905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전통시장은 0.7%, 대형 업체는 3.4% 장만 비용이 떨어지는 등 추석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aT는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송편·적류·탕류·나물류·과일류·과자류 등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다. 전통시장과 대형업체에서는 각각 17개 품목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렸

고, 각 11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배추·시금치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출하시기가 아직 이른 배와 생산량이 감소한 쌀 및 쌀가공품은 가격이 상승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장 큰 가격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배(25.5%)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2988원이었던 배 5개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1만6296원으로 뛰었다. 산자 14.4%(150g 내외 3096→3541원), 쌀 7.6%(2kg 5031→5411원), 무 -51.6%(100g 171→104원), 배추 -45.1%(300g 752→413원) 등의 증감폭도 컸다.

대형업체에서는 강정(150g)이 5249원에서 6894원(31.3%)으로 가장 많이 올랐

■추석 차례상 주요 품목 비용

(21일 기준·단위:원)

품목	전통시장	대형업체
소고기(우둔) 1.8kg	7만3830	9만212
동태포 1kg	9502	1만5308
도라지 400g	4533	1만1988
복어 1마리	2846	4363
대추 400g	5974	7863
배 5개	1만6296	1만7297
사과 5개	1만2790	1만3648
산자 150g	3541	4093
청주 1.8ℓ	1만355	9975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 배(22.4%), 엿기름(16.8%), 다시마(11%)도 큰 증가폭을 보였다. 무(-60.8%), 배추(-51.1%), 시금치(-48.1%) 등 주요 채소 가격은 대형 업체

서도 크게 내려갔다.

그렇다면 어떤 품목을 전통시장에서 사야 이득일까?

전통시장에서 소고기(우둔 1.8kg)를 사면 대형 업체보다 1만4514원 더 저렴한 7만3830원에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업체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인 품목은 녹두(1kg -1만1883원), 두부 부침(4모 -9462원), 시금치(400g -8743원) 등이 있었다. 반면 대형 업체가 더 싼 품목은 곱감(9개 -773원), 청주(1.8ℓ -347원), 쌀(2kg -204원) 등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에서 현금결제 사용할 수 있는 은누리상품권의 스마트폰 모바일 유형을 다음 달 초 출시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형 마트 추천 선물세트 오늘부터 본격 판매

5만원 이하 선물부터 200만원 황제 굴비세트까지 다양 롯데백화점 광주점 신속배송·이마트 상품권 증정 등

지역 대형 유통매장들이 잇따라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신세계는 지난 26일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했고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29일부터 선물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우수 특산품을 포함, 700여 개 품목

을 내놓는다.

5년 만의 가장 빠른 추석으로 인해 아보카도, 망고, 용과 등 수입 과일세트를 선보인 것이 눈에 띈다. '장흥 한우세트'(2.7kg·25만원) '명품 활전복 세트 2호'(160g 9마리·30만원) '완도 멸치 혼합 세트 2호'(1.8kg·7만5000원) 등으로 구성된 '우수 생산자 직거래 세트'도 매대를 채운다.

또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한우 프레시티지 L-NO.9 세트'(135만원·10세트 한정), '영광 범성포 굴비 세트 황제'(200만원), '와인 LT 폰타나 프레다 아트 컬렉션'(100만원) 등 고가 전략도 병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9일부터 9월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신속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31일 본 판매에 앞서 굴비세트만 29일부터 판매에 나선다.

젊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수 있는 '전 부세굴비세

트'(6만8000원)와 '연잎 부세굴비세트'(7만8000원) 등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냉장 한우세트 물량을 20% 늘렸다. 부채살·토시살·제비추리 등 특수부위만을 담은 '한우미각세트'(할인가 27만원·300세트 한정)와 '시그니처 한우 냉장세트'(121만5000원) 등을 마련했다.

이마트는 행사카드도 구매 땀 최대 40% 할인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한편 광주지역 백화점 두 곳은 12-13일 휴점하며,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연휴 전 일요일인 8일 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요즘 대세 '리빙'...한곳에 있어요
광주신세계는 삼성·LG·보스·프리츠한센 등 71개 가전·생활 브랜드가 모인 '생활 전문관'을 지난 23일부터 매장 8층에서 선보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로컬푸드 빅마트' 학동에 문연다 매일 농가에서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잇따라 오픈

정부가 '로컬푸드'(Local food)의 유통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광주지역에도 잇따라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4월 수완동 농협광주유통센터에 직매장을 내는 등 1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롯데슈퍼 팜양점의 화순 도곡농협과 손잡고 지난 5일 '도곡 로컬푸드 코너'를 선보였다.

29일 광주시 동구 학동에는 광주-전남 300여 개 소농이 참여하는 '광주로컬푸드 빅마트'(대표 하상용)가 문을 연다. 이 매장이 판매하는 품목의 70-80%는 남구 대촌·화순·담양·장성 등 지역 농가와 직거래한 '로컬푸드'로 채워질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에서 현금결제 사용할 수 있는 은누리상품권의 스마트폰 모바일 유형을 다음 달 초 출시할 예정이다.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강화 ▲농가교육 ▲포장재 지원 ▲소비자 교류행사 ▲안전성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하상용 대표는 지난 8일 조선대 대호전기홀에서 '입점 설명회'를 갖고 참여 농가들에게 상품 출하 때 주의 사항 등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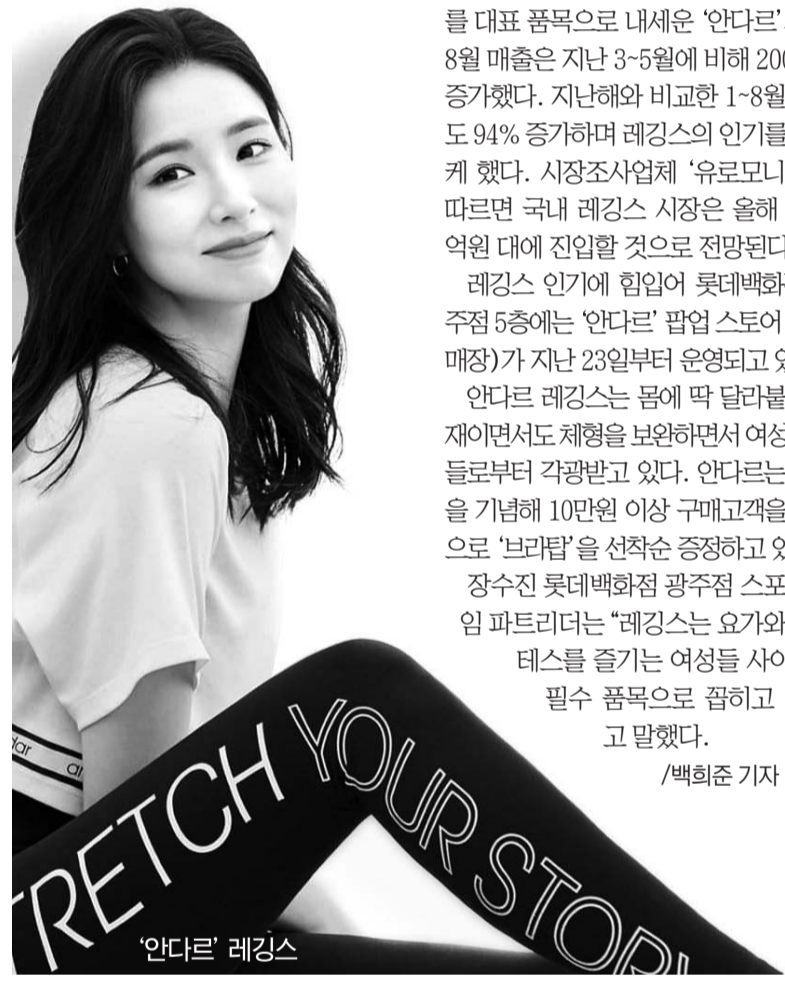
그는 "로컬푸드 직매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조합원이나 귀농 초보들에게 우선 판매권을 주기로 했다"며 "개업날 화환 대신 쌀을 기부 받아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마트는 개장 기념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캠벨포도 2kg'(1만4000원), '드림생미 10kg'(2만9000원), '무항생제 특란 30구'(2980원), '할전복 대 4마리'(9900원) 등을 할인 판매하고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일상복 된 레깅스' 백화점 잇따라 입점

광주신세계 안다르 매출 신장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운영



'안다르' 레깅스

편함을 추구하는 '컴포터이안'(Comfortable+ian) 소비경향이 대세를 이루면서 대표적 의류인 '레깅스' 인기가 높다.

2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레깅스를 대표 품목으로 내세운 '안다르'의 6-8월 매출은 지난 3-5월에 비해 200%나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1-8월 매출도 94% 증가하며 레깅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레깅스 시장은 올해 7000억원 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깅스 인기에 힘입어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에는 '안다르' 팝업스토어(임시매장)가 지난 2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안다르 레깅스는 몸에 딱 달라붙는 소재이면서도 체형을 보완하면서 여성 고객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안다르는 개장을 기념해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브라탑'을 선착순 증정하고 있다.

장수진 롯데백화점 광주점 스포츠 선임 파트리더는 "레깅스는 요가와 필라테스를 즐기는 여성들 사이에서 필수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1인 가구 증가에 즉석·편의식품 급성장

지난해 식품시장에서 1인 가구 증가로 즉석에서 먹는 편의식품이 가장 큰 폭을 성장세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내 식품산업 현황'에 따르면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류의 제조 가공산업 등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78조9000억원으로 2017년(75조580억원)보다 5.1%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GDP)의 16.3%, 국내 총생산(GDP)의 4.4%였다.

지난해 식품별 생산실적은 돼지고기 포장육(6조2000억원)이 1위였고, 즉석섭취·편의식품이 3조4000억원으로 전년(2조6431억원) 대비 13.7%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